

건강의료

아래턱 수술만으로 빼뚫어진 입술 교정

전남대 치대 황현식 교수팀
국제 학술지에 논문 발표



그러나 황 교수팀은 이 논문에서 3차원 영상분석을 통해 아래턱만 '편약수술'하고도 입술선 경사를 상당히 개선 할 수 있다는 사실

'빼뚫어진 입술(입술선 경사)'을 아래턱 수술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대 치과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황현식(49·사진) 교수팀은 국제적 권위의 학회지인 AJOD에 '하악골 비대칭 환자들을 편약수술 했을 때 나타나는 입술선 경사의 변화'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빼뚫어진 입술, 즉 입술선 경사는 상악골(위턱뼈) 경사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치료하려는 환자들에게는 하악골(아래턱뼈)과 상악골을 모두 수술하는 '양약수술'이 시술되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을 입증했으며, 어떤 환자에서 개선 효과가 큰지 상관성도 밝혀 수술 진단과 결론에 치중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절개 등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시술(Minimally invasive dentistry)이 관심을 끄는 최근 동향과도 들어맞아 앞으로 임상이나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안면 비대칭 치료 분야 권위자로, 그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안면 비대칭 3차원 영상분석법은 미국 참고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병원 유방암 예방·치료 건강강좌

조선대학교병원이 '유방암 예방의 달'(10월) 맞아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 강좌를 갖는다.

조선대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관 2층 하종현홀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외과 조현진 교수) ▲유방암 환자의 자기관리와 암 재발의 방지(외과 김권천 교수)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남수 조선대병원 원장은 "유방암은 식생활과 환경의 변화로 국내 여성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 유방암센터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유방암과 관련된 종합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눈 종합검진 50여 검사로 시력 저하 예방

밝은안과21 호남 최초 실시

밝은안과21이 호남지역 최초로 안과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안과 종합검진은 눈에 일어 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판단하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환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실명 위험에 높은 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밀종합검진은 대부분 소화기병, 심장병에 국한되어 있어 안과 질환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과 종합검진은 가장 기초적인 시력검사부터 근시, 원시, 난시의 정도를 자동

으로 측정하는 자동굴절검사와 안압검사, 시신경을 살피는 시신경 단층촬영, 망막신경섬유활용 등 50여 가지의 검사를 비롯해 안경착용을 위한 시력저방도 함께 진행된다.

안과 종합검진은 1~2시간 가량 소요되며 급식을 하는 등 특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지만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소프트렌즈는 3일, 하드렌즈는 2주일 정도 뺀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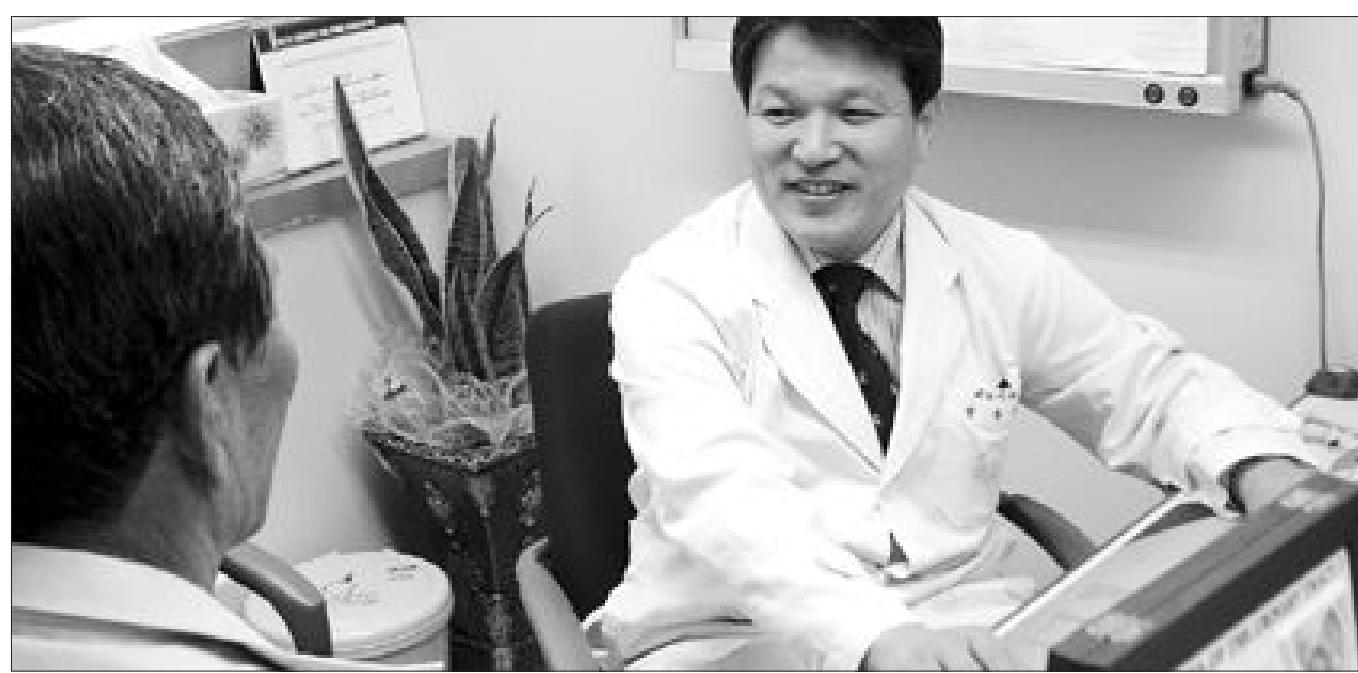
밝은안과21 주종대 원장은 "한 번 손상된 시력은 회복시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눈 종합검진을 통해 건강한 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통증 느낄땐 늦어…정기검진으로 조기발견을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암을 이기자!

<14> 전립선암



화순전남대병원 권동득 비뇨기과 교수가 소변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60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요실금 등 치료 부작용 대부분 회복 가능

고지방 음식 피하고 야채·과일 섭취해야

서 소변보는 배뇨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흔히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 전립선 암과 비대증을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립선암은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데, 디랙형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 항원(PSA)의 혈액검사와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탐색하는 직장수지검사 등의 간단하고 보편화된 검사법이 있어 진단이 어려운 암은 아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 특이 항원(PSA) 및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직장수지검사에서 전립선에 딱딱한 결절이 만지거나 혈액검사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 높으면 직장 수지과 유도하에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조직검사상 전립선암으로 판명되면 조직검사 부위가 완치되기를 기다린 후, 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전립선 MRI나 골주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전립선암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위험 인자들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

◇전립선암 진단=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세가 없다. 병세가 진행돼 다른 장기(주로 뾰, 골반)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전

이부위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나 이 때에는 이미 치료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다.

소변보기는 어렵거나 조금씩 자주 보는

양성자치료, 강도변조방사선치료(IMRT) 등을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냉동 및 열치료, 고강도 집중초음파 치료 그리고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주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암세포가 전립선을 벗어나 주변의 림프절, 뾰, 폐등으로 전이가 있을 경우 호르몬 치료나 항암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암세포가 전립선 바깥으로 벗어났으나 전립선 주변에만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일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병행해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의 목표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해 생존과 관련된 치료의 성공률이나 완치율의 최대화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동반되는 요실금이나 밀기부전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의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직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방법이나 약물은 없다. 치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요실금과 밀기부전과 관련된 신경들이 전립선 피막에 붙어서 지나가므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시 어느 정도 손상

을 받는다. 최근에는 신경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들이 개발돼 시술되고 있지만 암세포 자체가 전립선 주변부 파마근처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신경을 보존하면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료 후에 요실금과 밀기부전 등의 증상이 대부분 발생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문근육을 조이는 골반근육 운동이나 좌욕, 약물치료 등으로 대부분 회복된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회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 종양의 재발이 없고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며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이다.

◇전립선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전립선암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일반인들은 50세부터는 매년 1년에 1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009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립선암을 다른 종양에 비해 고지방식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식이요법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립선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전립선암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일반인들은 50세부터는 매년 1년에 1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009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립선암을 다른 종양에 비해 고지방식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식이요법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립선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전립선암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일반인들은 50세부터는 매년 1년에 1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009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전립선암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일반인들은 50세부터는 매년 1년에 1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009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40세부터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영/화/안/내

메가박스

콜롬버스시네마

하미시네마

씨네스전대

제일시네마

M관 디스트릭트9 (18세) 최고급관

2관 청송필실종사전 (15세)

3관 써로게이트 (15세)/에자 (15세)

4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5관 나는비와 함께간다 (18세)

6관 호우시절 (12세)

7관 부산 (18세)

8관 디스트릭트9 (18세)

9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1관 써로게이트 (15세)

2관 호우시절 (12세)

3관 국가대표 (12세)/파이널데스티네이션4 (15세)

4관 디스트릭트9 (18세)

5관 에자 (15세)

6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7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8관 청송필 실종사전 (15세)

9관 부산 (18세)

10관 나는비와 함께간다 (18세)

1관 에자 (15세)

2관 게이머 (18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청송필 실종사전 (15세)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6관 디스트릭트9 (18세)

7관 호우시절 (12세)

8관 내사랑 내결에 (12세)

9관 부산 (18세)

10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

1관 써로게이트 (15세)/파이널데스티네이션4 (18세)

2관 청송필 실종사전 (15세)/에자 (15세)

3관 나는비와 함께간다 (18세)

4관 내사랑 내결에 (12세)/국가대표 (12세)

5관 불꽃처럼 나비처럼 (15세)/호우시절 (12세)

6관 부산 (18세)

7관 디스트릭트9 (18세)

*500여 달은 주차장(3시간부분) *365 매일 심야

*이동 통신사 & OK 카페백 키드 할인 혜택

*하이 수영장 268-5757 *하이 물류장 262-0925

*하이 골프장 511-5080 *하이 당구장

ARS 전화예매 1544-0070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네스누적 시우나(오후11시)

주차장 * 미팅 헤이트 * 미팅 헤이트

미팅 헤이트 * 미팅 헤이